

# 프리젠티스쿨 어와나 클럽 이야기



안녕하세요? 프레젠티 나실인 학교 어와나 클럽입니다.

저희는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소속 방과후 교실입니다. 이를 때문에 영어학원인줄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프레젠티’란 선물이라는 뜻과 ‘현재, 임재’라는 뜻을 함께 갖고 있어서 “하늘의 선물을 세상의 보물”이라는 슬로건아래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부모가 하늘로부터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인 자녀들을 이 세상의 보물로 세우려는 취지아래 이 세상과 구별된 ‘나실인’들로서 또한 세상 속에서 탁월한 리더로 훈련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세상의 보물로 자라가기를 꿈꾸는 임재의 학교입니다. 이러한 부르심과 비전을 위해 자원하여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초등부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각 시간대별로 학습과 함께 특별활동(독서, 미술, 한자, 오르다, 자연활동 등)으로 구성된 커리큘럼에서 저희는 매주 목요일 오후 시간을 어와나 시간으로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남궁곤 선교사님으로부터 어와나 소개를 받고 자체 교사교육을 의뢰하여 시작되었던 게 벌써 몇 년이 흘러갔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바라는 목적과 부합된 부분들이 많아서 정말이지 우리 아이들에게 딱 이라는 생각과 함께 조금은 낯설지만 시작했던 첫 번째 어와나를 기억합니다. 절도 있고 위엄이 있는 개회를 시작으로 열렬한 응원과 함께 4팀으로 나뉘어져 맘을 뽐낼 줄리며 신나게 뛰는 게임시간, 열기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온 정성을 다해 말씀을 암송하는 핸드북시간, 그리고 신나는 찬양과 말씀 선포와 맘의 결실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던 시상식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와나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처음으로 참석했던 전국 어와나 게임즈 대회에서 거두었던 뜻밖의 메달들입니다. 사실 저희는 최고학년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기에 전국 규모의 게임즈대회에서 만났던 T&T팀들은 우리 아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신들이었습니다

거의 다윗 앞에 골리앗을 연상시켰습니다. 큰 규모와 엄청난 기량의 선수들과 비교되어 잔뜩 겁먹고 두려워하던 아이들의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겁 먹은 걸로 치자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어야 했기에 애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연습한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고 말해주며 스피드게임보다는 단체전에서 점수를 만회하자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기대보다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경기를 치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타던 아이들이 은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두고 T&T 아이들이 동메달을 따는 기적(?)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참가한 모든 팀들에게 메달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리고 그 후 매년 게임즈 대회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 주었던 아이들을 보며 한편으론 대견하고 한편으론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또한 성경암송대회를 위하여 아이들과 교실에서 연습하며 출전하였던 암송대회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다른 도전을 꿈꾸게 하며 하면 된다는 용기와 자부심도 심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공간이 부족하여 지하 예배실 바닥에 1/2축소된 트랙을 그려 게임을 하면서도 불편 없이 언제나 신나게 뛰어주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매주 어와나 시간을 고대하고 즐거워하는 아이들 모습 속에서 세상의 유혹과 어둠을 이길 영성을 가진 세대로, 세상을 변혁하고 다스리며 이끌어갈 수 있는 지성을 가진 세대로,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함께 성공하는 길을 찾아가는 감성의 세대로 세상의 보물이 되었던 성경의 탁월한 인물들-이집트의 총리 요셉, 이스라엘의 왕 다윗, 바벨론의 총리 다니엘, 페르시아의 관원이자 예루살렘의 총독 느헤미야, 페르시아의 왕후 에스더...처럼 자라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지금도 최선을 다해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 Story of Present School

Hello! This is Awana Club of Present Nazirite school.

This club is a kind of after school class included in church HaAn—dong, GwangMyung City GyeongGi—Do.

Someone mistook our school for an English academy cause of school name, but the name of 'present' is named from its meaning. The meaning of present is gift and presence of God, we named after the slogan of 'The gift of the Heaven to the treasure of the earth'.

We believe that children are the most valuable gift from heaven to parents and we want to grow them up to a treasure of the earth as a leader and Nazirite. With this belief we dream they can change the world with Christ.

We operate elementary class with volunteer teachers.

The curriculum is composed with normal class and special class as reading, arts, Chinese character, orff playing, Awana etc.. Our Awana program is held on every Thursday afternoon. Already several years has gone when we asked to introduce and learn about Awana from Missionary Nathan Namkung. We remember the first time of our Awana. We did not only expect Awana which suited our vision and goal perfectly but also we concerned cause of unfamiliar tools. It is invaluable and never neglectful time that dignified and disciplined opening ceremony, game time which is full with enthusiastic cheering and sweat, handbook time with their best to memorize the verse, and council time which is composed with joyful singing, preaching and award.

Such a moved time is repeated every Thursday.



The Awana games when we attended first time lives in our memory. Our team was composed with 3 grade students so they looked so small when we compared with other teams as David and Goliath. It is still vivid in our mind that our children's face with being seized with worry in that kind of nationwide Awana Games. Actually we, teachers also were seized with worry but we cheered children up. We had prayed children were not hurt in their mind cause of their result. But our Sparkies get the Silver medal and T&T get Bronze medal!(Later we knew all of team get any medal....) Afterward, they showed gradually upgraded result on every nationwide Awana Games. We are proud of them.

And the Bible Quiz is another challenging to children. They could get a pride and courage about verse memorizing. We thank to God and happy when we see the joyfully run children without complain even though quarter size of game track which is in underground chapel cause of space problem. We pray children will grow up as intelligent generation to transform and rule the world with spiritual sense. We dream children will grow up biblical heroes as Joseph who was prime minister of Egypt, David the king of Israel, Daniel the prime minister of Babylonia, Nehemiah the governor of Jerusalem in Persia, Ester the queen of Persia. We believe that Awana is the key of our pray and dream. We do Awana to beat the band.

Awana 영작 : 류구영 기자

